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같이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38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4월 12일)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5월 27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윤석열 대통령이 헌등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K선명상 개발…정신문명 선도하겠다"

서울 조계사 등 전국 사찰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봉행
일상회복 후 대규모 법석
윤석열 대통령 등 참석해
세대 대표 불자들이 헌화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봉축법요식 전경.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봉축법요식이 서울 종로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이번 봉축법요식은 일상회복 후 4년 만에 이뤄진 법석으로 예전 활기를 되찾아 인산인해를 이뤘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은 5월 2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 뜻을 찬탄했다.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운집한 이날 봉축법요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호계원장 보광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 윤재웅 동국대 총장, 이기흥 리더스포럼 대표 등이 참여했다.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지난해 당선인으로 조계사를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에도 조계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다. 또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최응천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가 대독한 봉축 법어를 통해 자비심이 세상을 변화시킴을 강조했다. 성파 대종사는 "부처님은 깨달음을 열어서 중생이 지닌 어둠을 걷어내고 본래면목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논밭을 일궈 중생이 쏟아낸 노여움과 아픔을 반야의 품으로 안아서 따뜻한 자비로 바꾸게 했다"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대비(大悲)의 한 생각이 세상을 변화 시키고 인생을 바꾼다"고 설했다.

취임 후 처음 부처님오신날 봉축사를 발표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제37대 집행부 주요 종책인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한국을 세계 명상 종주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세계를 선도하는 일등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이 힘을 가져야 한다"고 밝힌 진우 스님은 "앞으로의 세상은 인공지능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거쳐 5차 정신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우리 종단은 미래의 5차 산업혁명의 마음 명상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현대인들의 사고와 정서에 맞는 정신혁명의 선명상 프로그램을 조속히 개발해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널리 보급하겠다. K명상을 수출해 세계 명상의 종주국이 돼 정신문명을 선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것도 국민 행복의 새로운 천년을 위한 정진"이라며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세워 모시는 것은 나를 일으켜 세움이요 나아가 인간의 참된 성품을 회복해 국민 행복, 세계 평화의 새로운 천년을 만들어 가는 새 역사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옴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 표어가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이다. 부처님의 세상은 바로 공동체와 이웃을 위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인권 존중과 약자 보호, 세계 평화의 국정철학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다. 정부는 어려운 이웃들을 더 따스하게 살피고 국민의 삶 구석구석 희망이 스며들 수 있도록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세대 통합을 위해 세대를 대표하는 불자들의 헌화가 이어졌다. 어르신 대표로는 홍순의 · 홍순분 · 이영림 불자가, 중년을 대표해 윤상희 · 김경숙 불자가, 청년세대 대표로는 차수진 · 윤두현 불자가, 청소년 대표로 송인웅 · 차유진 불자가, 어린이 대표로 서보원 · 김성경 불자가 헌화했다.

이와 함께 법요식에서는 '불기 2567년 불자대상' 수상자인 자비신행회, 이원욱 국회의원, 이원종 배우, 홍성흔 前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봉은사 봉축법요식에서 아기부처님 관불의식을 하는 회주 자승 스님.

봉은사 사부대중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봉행

"부처님 법 전합시다!"

감로수 같은 비가 대지를 적신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선종본찰 봉은사에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 부처님 법을 세상에 전하자는 사부대중의 다짐과 원력이 가득 찼다.

봉은사(주지 원명)는 5월 27일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에는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과 주지 원명 스님, 최진식 신도회장, 태영호 · 박진 · 유경준 지역구 국회의원, 홍익표 · 배현진 국회의원, 조성명 강남구청장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봉은사 법요식의 핵심은 '부처님 법 전하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지난 2~3월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마치며 '성불하세요' 대신 '부처님 법 전합시다'로 인사를 대신하자는 자승 스님의 당부를 따른 것이다.

자승 스님은 이날 역시 "부처님이 룸비니에 태어나시며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똑같다는 뜻으로 차별이 없음을 선언하신 것"이라며 "부처님이 성도 이후엔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전하라고 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사부대중과 함께 '부처님 법 전하라'는 다짐이자 원력, 구호를 외치며 봉축법어를 짧게 마무리했다.

주지 원명 스님도 상월결사 정신의 실천이 곧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스님은 봉축사에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부처님오신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우리가 전법의 등불을 밝힐 때 소외된 곳에도 광명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봉은사는 법요식에서 박혜영 전 신도회 사무총장과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 선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동국대 이상민 학생에겐 서산사명장학금을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여야 당대표들도 "부처님오신날 봉축"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여야 대표들도 SNS계정에 봉축메시지를 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의 불자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밝힌 아름다운 연등처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 곳곳을 환하게 비추는 복된 날이 되길 기원한다"며 "부처님의 자타불이 가르침을 잊지 않고 국민이 화합하는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인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천 년이 넘는 세월동안 우리 삶에서 고락을 함께 한 부처님 가르침은 국가적 위기와 슬픔을 맞이할 때마다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소외된 이웃을 어루만지는 동력이 됐다"면서 "국민의 삶이 위기인 지금, 정치의 책무도 다르지 않다.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상생으로 나아가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부처님의 자비에는 차별이 없다"며 "우리 공동체와 정치가 따뜻하게 보듬어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삶 한복판에서 부처님의 뜻을 살필 수 있기를, 저를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돌아보는 하루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다음 주 휴간합니다.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